

탐심의 정체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있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욕심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에는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딤후 6:6). 그러나 '부하려 하는 마음'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있으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딤후 6:9).

탐심은 악마적 욕망입니다(Evil Desire, 골 3:5).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 욕망은 비전으로 발전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어집니다(약 1:15). 탐심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입니다(창 3:5-6). 아담과 하와는 탐심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 인해 수치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낫을 피해 숨었습니다(창 3:10). 그들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아닌 '대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마 6:24).

하나님과 동행하든지 아니면 대적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출 16:4).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 매일의 감사가 있는지 보신 것입니다. 일용할 것에 자족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며, 매일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양식'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내가 '양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하지 못합니다.

탐심은 더 많이 갖길 원하는 저열한 이기심입니다.

탐심은 인격을 앗아가고, 물질의 노예로 만듭니다. 영적으로 타락하여 도덕성을 상실하면 물질(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급기야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하나님과 그분의 비전으로 이어지는 창조적 욕망입니까?
- ② 생각하고 바랄수록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는 탐심입니까?